

절대량 부족 식량현실 외면말자

생산성 낮은 유기농법은 넌센스

「인간은 자연으로 돌아가라」

루소(1712~1778)는 19세기 프랑스 낭만주의 문학의 지평을 열면서 「인간은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외쳤다. 사상가이자 소설가인 루소가 쓴 많은 저서를 통해 외친 일관된 주장은 「인간의 회복」이었다.

인간은 자연상태에서는 자유롭고 행복하고 선량하였으나 인간 스스로가 만든 사회제도나 문화에 의해 오히려 부자연스럽

고 불행해 졌으며 사악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 루소의 주장이었다. 그래서 인간은 다시 한번 참된 인간의 모습 그대로인 자연을 발견하여 「인간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 루소의 일관된 사상의 주류였다.

현대는 어떠한가. 현대인은 인간 스스로가 만든 메카니즘의 틀에 얽매여 꼼짝을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렸다. 인간성이 파괴되고 자연이 파괴되는 상황 속에서 루소의 「인간회복」을 새



이태희(李太熙)

- 1938년 慶北 盈德山
- 연세대학교 국문과 졸업
- 1963년 「現代文學」詩 추천으로 문단데뷔
- 時事通信 사회부장, 保健新聞 편집국장 역임
- 農水畜産新聞 편집국장(現)

삼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물질문명, 산업사회의 폐해

첨단과학 문명 속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고도의 산업사회가 토해 놓은 온갖 공해로 인해 육체적 건강은 물론 정신적 건강마저도 위협당하고 있다. 먹고 입고 자는, 의식주 생활 구석 구석에 까지 공해라는 무서운 적이 우리의 건강을 노리고 있다.

우리가 먹는 가공식품에 성인병을 유발하는 독소가 있고 심지어는 발암물질까지 섞여있는가 하면 화학섬유에도 피부병을 일으키게 하는 물질이 있다. 휴식공간 주거공간인 건축물에도 건강을 해치는 여러가지 독소가 있다.

건축자재인 석면에는 가장 무서운 발암물질이 들어있어 법으로 이의 사용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석면 제거 작업에 엄청난 인건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된다. 석면 제거 작업은 목숨을 건 작업이기 때문이다. 암환자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돈을 벌어야겠다는

사람도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다. 뉴욕이나 워싱턴의 슬램파 철거작업에 뛰어난 인부들이 받는 하루 노임이 미국 노동자의 한달 임금과 맞먹는다고 한다. 이는 현대의 물질문명, 산업사회가 빚은 폐해를 극명하게 대변해주는 비극의 현장인 셈이다.

유기농법은 가능한 것인가?

이렇듯 먹고 입고 자는 인간의 일상생활 도처에 늘려있는 공해 가운데 가장 무서운 적의 하나가 「식품공해」다. 최근 소비자단체에서 조사 발표한 쌀의 중금속 잔류 문제는 한국 농업이 해결해야 할 또하나의 숙제거리로 등장한 셈이다.

탈(脫) 식품공해 전략의 지름길은 없는가. 이른바 유기농법·자연농법이 가능한가, 물론 가능하다. 그러나 여기에는 양자택일이라는 문제가 뛰따르게 된다. 인류의 기아해방을 포기해서라도 무기농법을 그만둔다면 유기농법은 가능하다. 인간이 원시상태로 돌아갈수만 있다면 무기농법은 자연스럽게 포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공해없는 쌀,



인간이 야생의 소, 돼지를 잡아먹던 원시시대로 돌아간다는 것은 꿈같은 얘기일 따름이다.

공해없는 토마토, 공해없는 돼지고기, 닭고기를 싫어할 까닭이 없다. 루소의 주장대로 인간이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야 오직 좋겠는가.

지구촌에 생존하고 있는 53억의 인구가 굶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배고픔 정도는 참고 견디면서, 현대과학문명을 송두리째 마다하고 자연으로, 원시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굳이 화학비료 뿌리고 농약칠 필요는 없다.

우리 인류가 원시상태로 돌아간다면 산업폐기물이 나올 이유가 없다. 매연 없는 맑은 공기, 옥계수 처럼 맑은 물을 마시면서 작살로 싱싱한 물고기를 잡아먹고 야성(野性)의 소·돼지 잡아 바베큐로 먹는다면 「식탁 공해」라는 말은 없어질 것이다. 원시

를 그리워하는 자연을 그리워하는, 꿈같은 얘기일 따름이다.

지구촌 곳곳에 기아연구가

지금도 검은 대륙 아프리카와 인도지나 등 지구촌 곳곳에서 기아에 허덕이는 인구가 수천만 명에 달하고 있다. 지난 7월 11일 「세계인구의 날」을 맞아 유엔인구활동기금은 「인구 폭발의 위기에서 지구를 구하자」고 선포했다. 우리나라에서는 76초마다 1명이 늘어난다. 전세계적으로는 1초에 3명, 1분에 1백 86명, 1시간에 1만 1천 1백 17명, 하루에 26만 6천 8백 28명이 늘어나는 꼴로 인구증가율이 가속화되고 있어 오는 2천년에는 세계 인구가 63억명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폭발적인 지구촌 인구 증가에 대처한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이겠는가. 두말할 것도 없이 식량문제의 해결인 것이다.

우리는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아프리카의 「검은 새싹」들이 질병과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비극적 장면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멀건 옥수수죽이나 꿀꿀

이중 같은 것을 배급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 기아인구를 지구촌 곳곳에 두고서도 세계의 지도자들은 인류평화 운운한다.

신품종육성 뒤엔 병충해방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지구촌 인구의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과학자들은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것이 사실이다. 식량증산을 위해 유전자공법이 동원되었으며 육종연구에 첨단과학이 도입되고 있다. 생명공학을 응용한 획기적 식량증산이 21세기에는 가능할 것으로 과학자들은 기대하기도 한다.

우리나라가 가난과 기아의 대명사였던 보리고개를 없앤 것도 따지고 보면 육종연구의 개가라고 할 수 있다.

녹색혁명을 가능케 한 것이 바로 「기적의 쌀」로 불리우는 통일벼의 육성과 재배의 성공이었다. 다수확 신품종인 통일벼 재배의 성공을 뒷받침 한 것은 새로운 농약의 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작물이든 신품종 재배의 승패는 병충해 방제에 달려있다. 기후와 토양조건이 아

무리 좋다 하더라도 해충을 막지 못하면 그해 농사는 헛것이 되고 만다.

화학비료의 사용량이 늘어남으로서 토질이 산성화되고 농약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식량작물의 각종 독성 잔류는 물론 땅과 하천을 오염시켜 자연 생태계마저도 파괴되는 위험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유기농법과 식량증산시책을 채택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식량생산 위한 필요악적 존재

화학비료로 인한 토질의 산성화와 농약살포로 인한 독성오염을 막는 길은 이들 화학물질을 사용한후 자연소멸 시키는 새로운 물질의 개발을 기대하는 도리밖에 없다.

농약의 경우 일부 화학물질은 태양광선이나 바람 또는 물등 자연에 의해 성분 그 자체가 파괴소멸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원천적으로 유해성분을 식량증산 목적에 사용한다 이후 소멸시킬 수 있는 신물질과 기술의 개발이야 말로 공해방지



어쨌든 농약은 식량생산을 위한 필요의적 존재임에 틀림없다.

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만약에 산업폐수를 정화하는 기술이 개발되지 않았다면 이 지구상의 강물과 바다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소름끼칠 정도로 끔찍스럽다. 오래전에 강물과 바다가 완전히 썩어버린 지옥이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어쨌든 농약은 식량작물 과채류등 농산물증산을 위한 필요의적 존재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도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현상인지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꼼꼼히 생각해볼 일이다.

유기농법 생산한계 인식해야

근자에 건강에 대한 관심고조

에 편승하여 마스크들이 유기농법을 자주 소개하고 있다. 유기농법에 의해 생산된 무공해농산물이 특수계층에 의해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은 건강차원에서 바람직한 현상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유기농법 생산에는 한계가 있음을 국민들은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미국을 비롯한 구미의 여러 나라들이 60년대 후반부터 시작한 농업의 반감정책에 의해 논의 황폐화가 진행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축산은 그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었다. 축산 규모의 확대는 가축을 농토에서 격리시켜 축산부문이 하나의 독립된 산업으로 성장 발전하는 과정에서 가축이 배설하는 분뇨가 농지로 환원되지 않음으로써 축산공해라는 새로운 문제점을 야기시키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콘베이어 보급과 겸업화의 진전은 경종농가에 있어 퇴비 생산, 즉 유기질 비료 생산을 급격히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다.

미국이 1972년에 발표한 농업백서는 『근래 일부에서 보여지는 화학비료와 농약의 대량투입,

유기질비료(퇴비)의 부족 등에 의해 농약 공해와 지력 저하등 농업생산의 원활한 수행에 있어 무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 『축산과 관련된 지력유지를 기본으로 하는 합리적 토지이용 방안을 수립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 의해 농토가꾸기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다. 이와 더불어 식량의 안전성 확보와 농업생산의 환경 악화 방지라는 관점에서 유기농법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2~4할 비싼 「유기」표시 상품

일본의 경우 국민 건강 관심도가 우리나라 국민 보다는 훨씬 높은 편이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TV·라디오 신문 주간지들이 경쟁이나 하듯 국민의 건강관심도에 편승하여 무공해 농산물과 유기농법에 관한 특집보도를 해왔다. 매스컴들이 유기농법 보도에 열을 올리게 되자 주부들은 유기재배 농산물이 자연적이고 인간에게 안전하다고 착각하여 가격이 비싸더라도 선호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식료품 가게들은 유기야채 유기과실 유기쌀이라고 포장에 표시하여 일반 농산물 보다 최저 20% 최고 40%나 비싼 값으로 팔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유기재배 산지에 직결해서 소비자에게 공급해주는 산지직송형 판매가 성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의 이같은 실정을 그대로 모방, 유기재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인류생존을 부정하는 농법

일본의 농학자 다케마스히데오(竹松哲夫)교수는 일본 매스컴의 유기재배에 관한 경쟁적 보도에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농촌에서 태어나 농촌에서 성장했고 직접 농사를 지으며 농학연구에 50년이라는 세월을 보낸 다케마스히데오 교수는 유기농법을 부정적인 시작으로 보고 있다. 아니 부정적이라기 보다는 아예 반대하고 있다. 유기농법은 현실과 유리된 매우 잘못된 농법이라는 것이다. 그는 지난 75년 일본의 「농약」 22권 4호에 「무책임한 토론회 회행」

이라는 제목으로 『무농약 무화학비료 재배는 넌센스』라고 지적한바 있다. 그는 유기농법론자를 가리켜 농업철학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혹평한다. 유기농법이란 생물생존의 순리 및 농업철학에 위배된다는 얘기가.

공생관계의 인류와 농작물

이 지구상의 잡초·잡목 3백과(科) 25만종 가운데서 인류의 선조들에 의해 선발된 오늘날의 수천 종류의 농작물 중 벼 밀 옥수수 콩 등은 수천년에 걸쳐 교잡개량과 돌연 변이를 거친 진지한 노력에 의해 인류의 생존을 유지함과 동시에 농작물과

인류가 공생관계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농작물은 야생의 원형식물과는 현저히 다른 인공적 식물로 육성 개량되었기 때문에 병충해에 침범당하기 쉬우며 기상재해에도 약하게 마련이라는 것이 학자들의 주장이다. 이는 다시말해 인류가 농작물을 떠나서는 생존할 수 없듯이 농작물 또한 인류의 보호없이 양분(비료)이 결핍되어 영양불량이 되고 병해충에 침식되거나 잡초에 압도되어 종국에는 사멸된다는 얘기가.

따라서 이 지구상의 모든 농작물은 인공적 재배, 즉 비료와 농약을 배제한 유기 농법만으로

오늘날 인공적 식물로 개량된 농작물은 인류의 보호없이 생존이 불가능하다





절대량이 부족한 식량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생산성이 극히 낮은 유기농법을 제한 없이 권장할 수 없다.

는 생존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기농법 주창가들은 놀랄만큼 무지하고 철학이 없는 자들이라고 다케마스 히데오 박사는 주저없이 비판하면서 유기농법은 인류의 생존자체를 부정하는 농법이라고 결론짓는다.

아직도 절대빈곤층 7.7%

과학적 논리를 바탕으로 전개하는 일본 농업학자의 주장을 빌지 않더라도 절대량이 부족한 식량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생산성이 극히 낮은 유기농법을 제한없이 권장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농약 사용량 증가에 따른 식량작물의 오염과 화학비료에 의한 토양의 산성화 문제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며

농산물의 독성잔류와 가축의 중금속오염도 심각한 문제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무공해 농산물을 선호하는 국민 심리를 악용하여 비판없이 유기농법을 수용하고 찬양하는 일부 매스컴의 태도는 지양되어야 하며, 농약의 과다 사용 화학비료 시비량의 증대를 경고하는 계도차원의 보도로 농토를 살리고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매스컴이 취해야할 보도자세라고 생각한다.

소비대중은 매스컴의 오도에 가장 쉽게 오염되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기에 영합한다든가 여론에 영합해서는 안되며 호기심을 자극하는 쪽으로 유기농법을 취재하고 보도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차제에 강조하고자 한다.

무비판적으로 특수계층의 선호심리에 덩달아 춤을 추는 식으로 유기농법을 부추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직도 이땅에 끼니를 걱정하고 있는 절대빈곤층이 전체인구의 7.7%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입이 포시라는(경상도 방언·호사스런) 사람중 한사람임을 지적해둔다.